

납골시설의 공간구성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 서울, 경기도의 납골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of Spatial Composition in Charnel Facilities

최진원* 박재승**
Chio, Jin-Won Park, Jae-Se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 spatial composition of charnel facilities. The study method is as follow:

First, To Examine existent research material about charnel house. Second, To Investigate controversial point of equipment and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research the case of cremated human remains deposit rooms in 12 charnel houses constructed since 1990. So, to propose the planning direction of spatial composi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utilize to basis data that is necessary in research of same kind hereafter.

키워드 : 납골당, 납골실, 공간구성

Keywords : Charnel Facilities, Charnel Houses, Spatial Composi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생뿐만 아니라 死의 문제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 중요하게 대두되어 왔으며 각 시대별, 지역별, 인종별로 각기 특색있는 장묘문화가 발달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를 보면 과거 조선시대 승유 역불 정책과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전통적으로 매장의 장묘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매장의 장묘문화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있어 국토 면적의 협소함과 호화 분묘등으로 인해 자주 사회 문제로 거론되어진다. “97년말 현재 전 국토의 약 1%에 해당하는 996km²가 묘지이며 이는 서울시 면적의 1.6배, 전국 공장부지 면적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장묘문화가 변화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수도권은 3년이내, 전국은 10년이내에 집단묘지의 공급이 한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¹⁾라는 보고는 이런 매장문화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보여준다.

최근에 매장문화에 의해 대두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시신을 화장한 후에 납골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매장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면서도 화장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실정이다.

정부와 각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런 국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전개함과 동시에 현대화되고 보편화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을 추진중이다. 일례로 최근 정부에서는 장묘 문화 개선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과 화장장, 납골당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골당 건립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정부에서는 장묘 문화 개선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과 화장장, 납골당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골당 건립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로 현재 납골당 건축 계획에 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연구 활동은 아직 미흡하며 기존의 연구내용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아래 납골당에 관한 기존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고 납골당의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한 시설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고찰하여 납골 시설의 공간구성 계획 기준을 고찰하고 향후 동종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양대 산업대학원 석사

** 한양대 건축학부교수, 공학박사

1) 보건복지부, 장묘제도개선, 보건복지백서, 1998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기초적인 납골시설의 공간구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납골시설이라 함은 그 분류 방식에 따라 세분화시킬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납골 시설의 주류를 이루는 옥내형 납골 시설, 즉 납골당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1990년도 이전에 건립된 납골당은 시설이 열악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0년도 이후에 건립된 납골당을 위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유 재산인 개인 납골 시설은 규모와 형태면에서 연구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 납골당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납골시설의 공간구성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써 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등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 및 고찰이 이루어졌다.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 자료 및 연구 문헌 주사를 통하여 장묘시설 및 납골 시설의 개념과 현황을 통한 개념 정리 및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둘째, 연구 문헌을 통하여 납골 시설의 공간 특성을 파악하고 납골 시설 공간의 기준 설정을 통한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의 틀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각각의 사례를 비교 분석,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1.2.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용어의 정의는 연구의 전개상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 납골당(Charnel Houses) : 화장된 유골을 대량으로 수장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납골당이 안치된다.

• 납골 용기(Urn) : 시체를 화장한 후의 유골을 담는 용기를 말한다.

• 납골함(Niche) : 유골을 담는 납골 용기가 안치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납골함의 단위가 복수로 집합하여 납골당을 이룬다.

• 납골단(Columbarium Garden) : 납골함들이 가로, 세로로 배열되어 있는 유골 보관 시설을 말한다. 납골당의 기준 단위이다.

• 참배단 : 고인의 유족들이 참배의식을 행하기 위해 위패나 제례용품 등을 올려 놓는데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참배실 내에 위치하며, 옥외에 설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납골당의 주요한 요소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유골이 안치되는 과정에서 이 요소들은 위계를 갖는다. 따라서 각 용어들의 위계 관계는 다음과 같다.

유골<납골 용기<납골함<납골단<납골실<납골당

2. 이론적 고찰

2.1 장묘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1 장묘시설의 개념 및 현황

1) 장묘시설의 개념

장례는 그 사회의 관습이나 종교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시신처리 방법은 매장 화장의 두가지 처리방법이다. 이러한 두가지 장례방법은 역사적으로 아주오래전부터 존속되어 왔으나 시대적 변천사를 통해 오늘날 일반적인 유교식 매장이나 근대식 화장을 통한 장례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장을 선호하는 장례관습은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삭막하기만 한 묘지 집담화를 더욱 구축하게 하고 무질서한 개인 묘지의 불법설치가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2) 장묘시설의 현황

• 묘지 : 우리나라 묘지 현황은 공설묘지가 212개소, 사설법인 묘지가 123개소가 있으며,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화장장 : 전국의 화장장의 현황은 45개소로 1998년말 현재 화장실적은 60,961건이다. 그러나 화장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증설하는 시설 또한 조기에 화장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므로 늘어나는 화장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2 화장장을 시급히 건설해야할 형편에 있다.

• 납골시설 : 전국의 납골당은 1998년말 총 72개소이고 봉인능력은 529,053이며 1998년말 현재 146,588구가 봉인

되어 있다. 대부분의 납골 시설은 공설 화장장내 부속시설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시설이 매우 빈약하고 노후하여 유골 보관소의 기능 밖에는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1.2 장묘시설의 유형 및 형태 분류

1) 장묘시설의 유형

납골시설에 있어서는 납골을 모시는 방법에 따라 건물을 지어 그 안에 유골을 모시는 옥내형 납골당 방식과 납골단, 영탑을 설치하여 모시는 옥외형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묘지시설에는 집단묘지와 개인묘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봉분묘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1. 장묘시설의 비교

	한 국	일 본	미 국
장례예식 시설	병원장묘식장 종교단체에 의한 장묘식장 법인장묘식장 화장장시설에 부속	화장장 시설에 부속	화장장시설, 교회에 부속
화장시설	대차형 화장시설, 캐비닛식	대차형화장시설	캐비닛식
납골시설	납골묘 : 개인형, 가족형 납골당 : 옥내형, 옥외형	일반, 지쟁, 벽형 장기 수장시설 단기 수장시설	지상 : 실내 실외
묘지시설	개인 묘지 집단묘지: 법인, 공동묘지, 공설묘지	집단 묘지	집단묘지

2) 장묘시설의 형태분류

장묘시설은 크게 입지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장묘시설의 입지별 유형

구 분	특 성
입지에 따라	시가지형 - 접근 용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요인 교외형 - 접근 용이하지 않음, 자연경관의 활용
주변 여건에 따라	구릉지형 - 경사지, 전체적으로 좋은 환경 평지형 - 접근이 용이, 주변개발에 대하여 산만

표 3. 장묘시설의 규모별 유형

구 분	특 성
인구에 의한 분류	-지역별 인구 구성수에 따라
지역 특성에 의한 분류	-지역별 문화적, 역사적 특성에 따라
부지 면적에 의한 분류	-선택 부지의 현실적 상황에 따라

표 4. 장묘시설의 기능별 유형

구 분	기 능	특 성
단일형	장례예식시설 화장장 시설 납골시설 묘지시설	-각각의 특성에 따라 기능을 발휘한다.
종합형	장례+화장장시설 화장+납골시설 장례+화장+납골+묘지	-일본의 경우 예가 많다 -서울 시립장제장 -부산영락공원, 수원시립 연화장

2.2 납골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2.2.1 납골시설의 개념

1) 납골시설의 개념

납골시설은 시체를 화장한 후 유골을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식이다. 건물내의 납골함에 유골을 보관하는 방식을 Niche(납골단)라고 하며 별도의 구조물을 만들어 그 벽속에 납골함을 보관하는 방식을 Columbarium(납골단, 납골탑)이라고 한다. 또한 묘지와 같이 실외의 땅속에 납골함을 보관하는 방법을 Lawn Niche(납골묘) 라고 한다.



그림 1. 외국의 옥외 납골단 그림 2. 우리나라 옥외 납골단

묘지와 납골당 두 가지만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용어 체계는 시설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세분화된 구분방법이 필요하다. 상기의 예를 들은 미국 또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전통과 문화의 차이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묘 문화 개선에 있어 보다 다양한 보관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용어의 정리를 하였다.

2) 납골당 관련 법규의 현황

납골당 관련 법규는 우리나라 장묘제도의 기본법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외에 보건 복지부 훈령인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지침」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나 규칙 등으로 장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표 5. 매장에 관한 법률현황

구분	법 규 명	장묘제도와 관련내용
기본법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장소·신고·방법·절차 등을 규정 공설·사설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 규정
관련법	국도이용관리법 도시 계획법 도시 공원법	준도시지역 내 집단 묘지지구 규정 도시계획시설로서 묘지관련시설 규정 도시공원으로서 묘지공원 규정

3) 납골당관련 법규의 개선방향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납골당을 포함한 묘지 관련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동 묘지의 결정 기준으로 ‘시가지에 근접되지 아니한 도시 외곽부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처럼 설치 장소의 제약이 큰 묘지 관련 시설에 납골당을 제외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법규상으로 규정된 공설 및 사설 납골당의 설치기준은 설치 장소, 유골 보관설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고 추상적이다. 안치 능력에 따른 시설 기준과 같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2.2 납골시설의 현황 및 전망

1) 납골시설의 현황

납골시설의 현황을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납골시설의 분포현황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서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구	현대공원(공원묘원)
인천	장묘관리사무소	경북	남양공원(공원묘원)
경기	성남시영생관리 사업소		우성공원(공원묘원)
	극락사(불교)		묘지이장공사
	장안사 납골당(불교)	경남	경주시청 사회복지과
	영각사(불교)		안동공원묘원(공원묘원)
	매화공원(개)		마산공원묘원(공원묘원)
	상락원(불)		김해공원묘원(공원묘원)
강원	원주시립화장장		통영시청화장장
	속초시청 화장장 관리소		광주시립화장장
	공설묘지관리소		유달공원묘지
	사북 화장장	광주	여주시립 납골당
	청원군 공원묘지 관리소	전남	충혼각(불교)
	금산군 공설 납골당		
	공원관리계(공원묘지)		
충북	홍성군청 봉서원		
충남	예산군청 공원묘지		

2) 납골시설의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골시설의 향후 발전방향은 장묘시설의 계획과 일반인들의 장묘습관의 개선,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의 관계에 의해 예측할 수 있다. 화장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인하여 매장문화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따라서 적절한 시설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납골 시설의 공간구성 및 특성

3.1 납골시설의 유형분류

납골시설은 옥외 납골시설과 옥내 납골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옥외 납골시설은 시신을 화장후 유골을 지하에 모시는 납골묘 형태, 지상에 설치하는 납골단 형태와 납골탑(부도) 형태가 있으며, 옥내 납골시설은 납골당을 지

어 그 안에 납골함을 설치 유골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건물내 또는 옥외에 층층이 설치된 교실내에 시신을 안치하는 석묘 방식이 있다.

3.1.1 옥외 납골시설

1) 납골묘형

납골묘는 지하에 유골을 안치한다는 것과 봉분이 있다는 점은 묘지의 형태와 같으나, 납골묘는 시신을 화장후 그 유골을 안치한다는 점과 가족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납골묘의 형태

2) 납골단형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납골공원을 조성하여 여러개의 납골함을 하나의 납골단으로 만들어 공원내 벽식으로 처리하여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이다. 현재 서울에 용미리 제 1묘지구역 안에 벽식 납골단이 제2묘지 구역 제 2봉안당 옆에 벽식 부부납골단이 설치되어 있다. 납골당의 장점을 살펴보면 납골시설 중 가장 개방적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 납골단의 형태

3.1.2 옥내 납골 시설

건물내에 납골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형태(평면공간)에 따라 유골을 안치하게 된다. 납골당의 장점은 집단적으로 가장 많은 유골을 안치할 수 있으며 관리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유골이 많이 실내에 안치되므로 채광 및 환기에 유의하여야 하며 명절이나 한식등 성묘시 혼잡이 우려된다.



그림 5. 납골당의 형태

3.1.3 석묘형태

스페인에서 시작되어 보급된 것으로 아파트형 묘지라고도 한다. 미국에서 선호하는 장묘 방법으로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묘실속에 안



그림 6. 석묘 형태

치하는 방법이다. 장점으로서는 시신을 화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묘지의 제사용을 원하는 현재 매장시보다 탈골이 빨라 석묘의 제사용이 가능하며 유골수거를 위한 개장절차가 간소하다.

3.2 납골당의 공간 구성 및 특성

납골당 내의 공간을 분류하여 보면 기능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진입과 서비스부분인 공용부분, 참배자가 직접 이용하고 고인을 직접 만나는 참배부분 그리고 관리 부분으로 구분된다.

표 7. 납골당의 공간구성

공간 구성	주요 공간
참배 시설	납골실, 참배실, 기념비, 상징탑, 동산
관리 시설	사무실, 통로, 창고
공용 부분	건물입구, 출입구 홀, 휴게시설, 주차시설, 수변공간

3.2.1 동선계획

납골당의 공간구성 방법으로 동선에 의한 방법을 들 수 있는데 납골당에서의 동선은 유골을 처음 안치할 경우의 동선과 조문객의 동선, 관리 동선으로 구분되어진다. 일반 조문객의 경우 참배와 함께 식사와 담소가 이루어지며, 최초유골 안치 동선은 행렬이 따르게 되므로 이 두 동선의 경우는 분리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관리 동선은 그 기능이 약하므로 우선적으로 앞서 말한 두 동선의 분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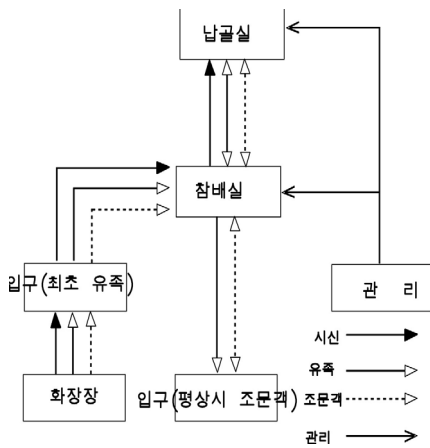


그림 6. 납골시설의 동선 분석도

3.2.2 납골실의 구성 및 특성

화장후 유골을 안치하는 곳으로 각실에 납골함이 가로와 세로로 락커와 같이 설치되어 있다. 납골실 크기는 납골함의 구에 따라 결정되며 기존에 설치된 납골 1평당 납골 안치수는 6대도시 평균 57구, 9개도 평균 36구, 전국

평균 39구로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따라서 납골실의 크기는 참배방식에 따라 납골실의 크기가 규정되므로 납골 1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클수록 납골시설의 충분한 요소가 구성 될 것이다.

1) 단위 실별 배치형

- 선형배치 ; 선형배치 형태는 연속된 복도에 납골시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많은 유골을 안치할 수 있으며,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대규모의 납골시설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유골을 유골함의 번호순에 의하여 안치하게 되므로 유족의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

- 방사형 배치 ; 납골 실을 특성별로 구분을 하여 배치함으로써 종교적인 내용 등의 차이점을 완화 시켜줄 수 있다. 즉 특성에 맞게 참배시설을 구분시켜 설치해 줌으로서 유족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으나, 여러 실의 구분은 오히려 공간 구성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동선이 복잡하고 관리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2) 일 실형 배치

납골함을 모두 한곳에 안치하는 방법으로 규모가 큰 안치시설일 경우에는 창고형태의 이미지가 강하게 들 수 있어 유족들의 불만감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의 가족단위의 안치 실에 적합하며 관리의 장점이 있다.

3.2.3 참배실의 구성 및 특성

제단이 갖추어져 참배객이 제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납골당내의 동선처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중앙홀에 배치하며, 이용자의 집중에 대비하여 여러개의 참배실이 요구되며 종교적 제례방법에 따라 참배실을 구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표 8. 납골실의 배치방법

형태	단위 실별 배치		일실형 배치
	선형배치	방사형 배치	

1) 참배실의 배치계획

참배실의 배치유형은 인접배치형과 격리배치형의 두 가지 유형을 갖는다. 인접배치형은 일정한 위치에 참배실이 집중 배치되어 있으므로 관리자가 참배객 및 참배실을 관리하는데 편리함을 갖을 수 있다. 그러나 참배객들의 의식 행위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접한 참배실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표 9. 참배실의 배치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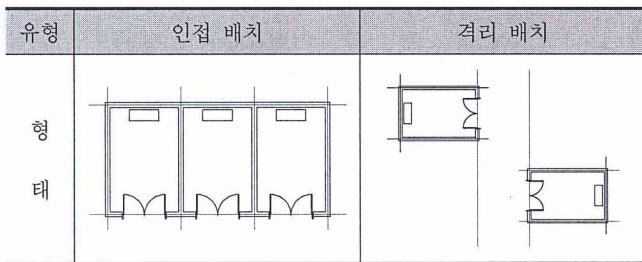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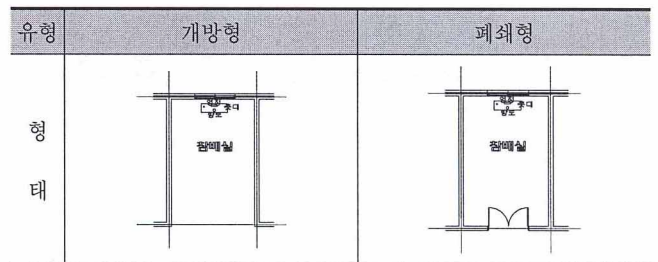


표 10. 참배실의 평면유형



2) 단위 참배실의 평면계획

참배의식은 크게 전통적인 제례의식인 유. 불교 식 참배의식과 개신교 식 참배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참배의식은 상이한 절차와 형식을 갖는다. 이처럼 상이한 참배의식에 따라 요구되는 참배실의 형태도 각기 다르다. 참배 의식상의 가장 큰 차이는 유. 불교 식 참배의식은 절을 하며, 개신교 식 의식은 절을 하지 않고 찬송 및 예배 등 가족예배 절차에 준하여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참배의식의 수용방법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참배실의 평면 형태는 개방형과 폐쇄형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²⁾ 개방형은 관리와 환경 적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소음에 대한 피해와, 독립성이 미흡하다. 폐쇄형은 소음이 차단되고 독립성 또한 유지될 수 있으나 환경 적인 측면과 관리 적인 측면에서 용이하지가 못하다.

4. 사례조사 및 분석

4.1 분석의 틀

앞장에서 살펴본 납골당의 공간구성에 관한 이론적인 건축계획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례조사를 통하여 각 공간들의 특성 및 일반적인 기준을 비교하여 분석의 틀을 작성하였다.

4.2 사례분석을 위한 예비고찰

4.2.1 사례조사 목적과 방법

1990년 이후에 건립된 납골시설중 공간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옥내납골시설, 즉 납골당을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론에서 고찰된 공간의 구성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규모의 서울과 경기지역 납골당을 실질적인 조사대상

표 11. 조사 시설 설계 개요

명칭	납골당	위치	봉안능력	봉안실적	건립유형	완공연도	건물형식	규모	면적	배치도
A	벽제리 추모의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6,036기	6,036기	공설	1994	R.C조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925평 연면적:1,594평	
B	용미리 옥외벽식추모의집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5,348기	5,348기	공설	2000	R.C조	-	대지면적 : 2,660.5㎡	
C	용미리 추모의집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36,945기	8,010기	공설	2000	R.C조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465평 연면적:1610평	
D	수원시립 연화장 납골당	수원시 팔달구 하동	-	-	공설	2000	R.C조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면적:2,292평 연면적:5,470평	
E	성남시 영생납골당	경기도 성남시	16,750기	3,300기	증설	1997	R.C조	지상2층	건축면적:115평 연면적:351평	
F	매화공원납골당	경기도 동두천시 매화공원	4,500기	252기	사설	1992	R.C조	지상1층	건축면적:38평	
G	목련공원납골당	충북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5,320기	529기	사설	1997	R.C조	지상2층	연면적:130평	
H	망향의 동산 납골당	충남천안시 성거읍 요방리	13,400기	-	공설	1994	R.C조	지상2층	연면적:221평	
I	영묘묘원납골당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6,036기	6,022기	사설	1997	R.C조	지상3층	연면적:1139평	
J	남해군 납골당	경남 남해군 서면 연죽리	1,700기	1,493기	공설	1999	R.C조	지상2층	연면적:200평	
K	고성군 납골당	경남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4,500기	3,405기	공설	1998	R.C조	지상2층	연면적:145평	
L	영락공원 제1납골당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16,570기	16,570기	공설	1995	R.C조	지상2층	연면적:351평	
M	영락공원 제2납골당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48,000기	48,000기	공설	1998	R.C조	지상3층	연면적:1280평	

2) 양영훈, 납골당 납골실과 참배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경시대 석사논문, 2000

으로 한정하였다. 본조사는 5개소를 선정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통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4.2.2 조사대상 납골당의 건축개요

조사대상 납골당의 건축개요를 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4.3 조사대상 납골당의 공간 특성

4.3.1 납골당의 배치 분석

조사대상 시설은 크게 종합형(A, D, K, L, M)과 단일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종합형의 경우 화장장과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 단일형의 경우는 주로 기존 묘지에 건축되어져 공원화 개념과 외부공간의 계획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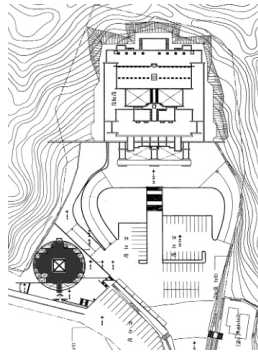


그림 7. A시설 - 종합형

4.3.2 동선 분석

납골당내 동선의 흐름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최초 유골안치시 행렬동선과 일반 조문객동선 그리고 관리자 동선으로 나눌 수 있다. 최초 유골 안치 동선은 일반적으로 긴 행렬이 따르고 오열과 곡소리등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하며 성격도 일반 조문객 동선과는 많이 다르므로 이 두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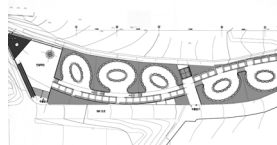


그림 8. B시설 - 단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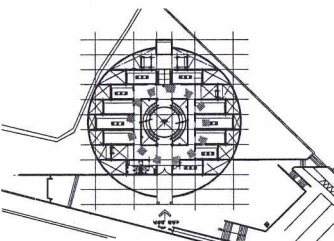


그림 9. A시설 - 내부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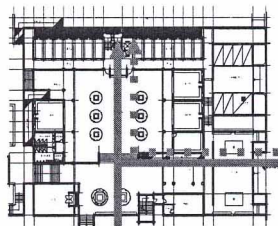


그림 10. C시설 - 내부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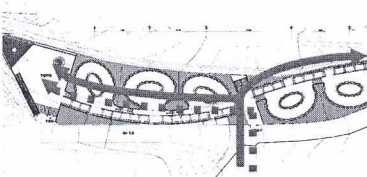


그림 9. B시설 - 내부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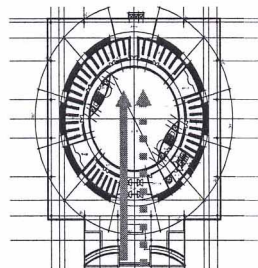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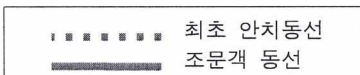


그림 11. D시설 - 내부동선



4.3.3 납골당의 형태 분석

8개소의 납골당 폭이 1.52m로 거의 일치하는데 이는 납골함이 가로 5칸으로 배열됨으로써 나타나는 치수이며 세로로는 평균적으로 7칸이 배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닥에서 최상단 납골함의 중앙부까지의 높이가 2.08m로서 표준이치치수상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봉안기수를 늘린 결과이며 유족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하단의 납골함의 경우 기단부의 평균 높이가 13cm여서 바닥과 너무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납골당의 배치는 납골단과 창의 배치에 의해 직각형과 평행형으로 분류되어지며, 납골단과 창의 배치 방향은 채광과 환기의 측면에서 평행 배치형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장변 쪽에 창을 배치하여 채광면적이 크도록 하고, 그 결과로 출입구와 복도는 단변쪽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4 납골실의 평면 분석

납골단 사이의 통로 폭은 평균 1.33m로서 방문객의 집중 이용시 동선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창의 위치는 환기와 채광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납골단 사이의 통로와 창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은 시설이 다수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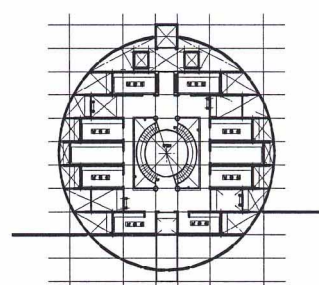


그림 12. 선형배치 - A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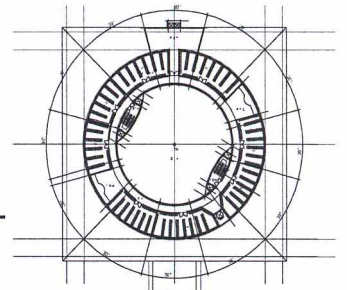


그림 13. 방사형배치 - D 시설

납골실의 평형유형은 선형배치(A, B, C, E, F, G, H, I, J)와 방사형배치(D), 일실형(L, M)로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선형배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리하며 긴 통로를 통해 각 실이 분리되므로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방사형 배치는 내부에 중정을 중심으로 각 실이 같은 거리상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중정의 도입으로 개방적이며 환하고 편리한 느낌을 주게 된다. 또한 이 내부중정에서 각 실에 대한 인지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실형은 내부에서의 전체적인 개방감은 높으나 납골단이 밀도화 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다.

4.3.5 참배실의 형태 분석

참배실의 배치유형은 납골실과의 관계에 따라 인접 배치형과 격리 배치형의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인접 배치형(C, E)의 경우 일정한 위치에 참배실이 집중 배치되어 있으므로 관리자가 참배객과 참배실을 관리하는 것이 편리한 반면에 참배객들이 찬송가나 불경을 외우는 의식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납골실과의 연계성이 좋지 않고 혼잡한 양상을 띤다. 대부분의 납골당에서는 격리배치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층당 2~3곳의 참배실을 구성하고 있다. 격리배치의 경우 이런 혼잡함을 줄일 수 있으나 참배객들이 봉안되어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옥외 납골시설의 경우 별도의 참배실 구성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참배실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의식 때문에 구분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사례 납골당에서는 그러한 예를 찾아보지 못했다

4.3.6 종합고찰

조사시설의 종합고찰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종합 분석

명칭	납골당의 배치		동선 분석		납골당의 공간현황		납골당의 각부치수		납골실의 평면형태			참배실의 형태	
	종합형	단일형	출입구 분리	중복 여부	통로폭 (m)	통로-창의 일치 여부	기단부 높이	상부 높이	선형	방사형	일실형	인접 배치	격리 배치
A	●			●	1.3	●	0.22	0.24	●			●	
B			●	●			0.15	0.15	●				●
C		●	●		1.8		0.1	0.2	●			●	
D	●			●	2.0	●	-	-		●			●
E	●			●	0.9	●	0.12	0.03			●	●	
F		●		●	-		0	0.05	●				●
G		●		●	1.34	●	0.13	0.11	●				●
H		●		●	0.97	●	0.10	0	●				●
I		●		●	2.04	●	0.20	0.10	●				●
J		●		●	1.25	●	0.10	0.11	●				●
K	●			●	0.88	●	0.10	0					●
L	●			●	1.07	●	0.10	0.10			●	●	
M	●			●	1.09	●	0.07	0			●	●	
평균	●		●	●	1.33	●	0.11	0.9	●				●

5.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납골당의 배치 계획시 독립적인 계획보다는 옥외 납골시설과 함께 공원화되고 현대화된 계획이 요구되어지며, 건물의 특성상 그 수요가 증가 될 수 있으며, 납골당 시설입지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래확장에 대한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조사대상 대부분의 납골당이 중정의 도입으로 개방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나 중정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동선이 중정을 통과하고 이용객이 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진입구와 중정의 분리로 최초 유골안치 동선과 조문객의 동선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참배실의 배치는 각 층마다 소규모의 참배실이 배치되어야 하며 납골실과의 분리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납골당에서 참배실이 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성격이 다른 이용객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외부 참배실 계획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용객의 종교에 따른 참배실 규모의 연구와 특정기간에 몰리는 이용객의 수에 따른 참배실의 규모가 연구되어야 한다.

4) 납골단의 규격에 의해 납골실의 계획이 필요하나 이러한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납골함과 납골단의 정확한 제원을 파악한 뒤 납골실의 단위 계획이 설정되어야 한다.

5) 납골단의 형태를 보면 일괄적이고 단조로운 형태가 나타나는데 외국의 사례와 같이 납골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납골단 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6) 우리나라의 경우 옥외 납골시설은 가족 납골묘와 벽식 납골단의 형태가 시도되고 있다. 실용적이고 공원화 개념에 부합되어 향후 발전되어야 할 방향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납골당의 연구와 옥외납골시설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17. <http://www.napgol.co.kr/>
 18. Edwin Heathcoth, Monument Builders, Academy Editions, 1999
 19. Paco Asensio, New Architecture-vol.4-Special Buildings
 20. Th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sia, Bal Eon, Inc., 1994
 21. 建築思潮研究所(編), 建築設計資料 No.46 葬祭場・納骨堂-地域施設としての建築的課題, 建築資料研究社, 1999

<접수 : 2004. 7. 31>

참고문헌

1. 김경혜, 장묘의식의 변화와 서울시 화장 장려방안,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2. 이필도, 공원묘지의 공원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희정, 장묘시설 이용실태, 한국장묘(창간호), 한국장묘연구회, 1995
4. 임중권외, 묘지제도에 관한 국민의식 행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5. 한종훈, 화장, 납골시설의 건축적 모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 2000
6. 양영훈, 납골당 납골실의 현황 및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 1998
7. 건축세계, 특집장묘시설-21세기 죽음의 정원, 2000. 5
8. 건축문화, 포커스 죽은자와 산자의 공간, 1997. 5
9. 조상욱, 초현대식 사설납골당 묘지의 5분의 1값이면 산다, 매일경제신문, 1999. 12. 5
10. 국민 10명중 7명 본인화장에 찬성, 중앙일보, 1999. 11. 30
11. 권상은, 납골시설 고급화로 거부감 없게, 조선일보, 1999. 11. 7
12. 임재해, 전통상례, 대원사, 1996
13. 정길자, 고려시대 화장에 대한 고찰, 부산사학 제7권, 1983
14. 강인구, 백제의 고적연구, 일지사, 1977
15. 연합통신, 명드는 금수강산(묘지제도 고쳐야 한다), 1994
16. <http://www.memorial-zone.or.kr>